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6주일
제32권 12호(나해) 2012-2-12

[묵상]



배론 성지 <원주교구,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소재>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께서서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주시며
부정한 사람으로 혼자 살아가야했던
한 인간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그가 앓던 나병이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들리지 않고
병의 치료만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한 능력을 가진 의사일 뿐입니다.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청한 것은
신체의 불편함을 해소함이 아니라
배척되고 격리되었던 죽음과 같은 삶에서
인간다운 삶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기적이야기만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감추십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자신의 참된 삶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기한 일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게
나병보다 심한 병을 앓고 있음을 깨우쳐주시며
저희에게서 모습을 감추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프래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꼭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재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명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강은영 클라라
특전미사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민병익 요한 & 민선언 마리아, 신태동 요아킴, 송기인 요셉, 이상일 요셉, 박영준 안토니오, 윤준의 스콜라스티카, 유점이 베로니카, 강은영 클라라, 최창용 스테파노, 김중환 야고보
	(생)모은기 다두, 김복순 벨라멧다, 우영희 엘리사벳, 이정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김영길 안드레아,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이귀애 테레사, 민기남 모니카, 김금자 테레사, 김창욱 마리아, 최금옥 말찌나, 김원영 알로이시오, 김리처드 요한 & 김스페판 프란치스코,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전화숙 마리아, 송호창 요셉 & 송호민, 고정민, PV1반 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레위기(Leviticus) 13,1-2.44-46

화답송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 처. 구원의 환호로 저 를 감싸시 나 이 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이, 모두 환호하여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0,31-11,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마르코(Mark) 1,40-45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주님은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50	250	178
봉헌	255	255	269
성체	309	309	287
파견	214	214	23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성전과 성경

교회는 과거에 말씀하셨던 자신의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과 성경을 통하여 당신 말씀을 전해 주기를 멈
추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실상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성경은 영감 받은 계시의 증
언으로서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과 함께 신앙의 최고 규범이
됩니다.

성경, 영감, 진리

19). 거룩한 본문을 인간의 말에 담긴 하느님 말씀으로 이해
하기 위하여 핵심이 되는 개념은 분명 영감입니다. 여기에서
도 유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성령의 작
용으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강생하셨듯이, 성경은 같은 성
령의 작용으로 교회의 태중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써, 영감 받은 본문들을 쓴 인간 저자의 중요성을 온전히 인
정하는 동시에 하느님 바로 그분을 참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
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이 밝힌 바와 같이, 성경에 올라
로 다가가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영감이라는 주제
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성령의 감
도로 쓰인 성경은 또한 같은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감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때, 우리는
성경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
고 역사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작품으
로서가 아니라 단지 역사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읽을 위험을
맞게 됩니다.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영감이 성경의 진리라
는 주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영
감의 역동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 담
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의회와 진술은, 영감 받은 책들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합
니다. “영감 받은 저자들, 또는 성경 저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고 성실하게 그르침이 없이 가르친다고 고백해
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
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하다. <◆계속>

질병의 다양한 원인과 치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르 1,40)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어느 한정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질병에 걸리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일 병으로 시달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부분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질병은 우리의 삶 안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질병은 죄에 대한 벌이나 보속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는 엘리사에 의해서 나아만이 치유된 것이(2열왕 5장) 두드러지게 드러날 뿐 의사나 치유자, 치유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질병에 관한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은 예수님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며 제자들의 질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요한 9,2) 질문은 그들이 여전히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겼다고 하는 제자들의 견해를 거부하셨습니다.(요한 9,1-7 참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이 경우에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베푸신 치유를 말합니다. 또한, 병이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삶을 이끌어감으로써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 왜냐하면 하느님의 능력과 창조성은 우리가 고통

의 한복판에 있을 때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희랍 사고에서 치유행동,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 그리고 땅을 일구는 행위는 서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치유는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여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된 여인(루카 8,43-48 참조)에게 말씀하실 때 선택한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sozo라는 영적·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모든 부분 곧,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죄는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은 단순히 운명일 수 있는데, 이는 병을 지니고 태어나거나, 질병의 요인을 지니고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유행병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우리를 온전함과 개성화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열고 편견을 갖지 않고 질병의 각 경우에 접근하며, 여러가지 각도에서 질병의 원인과 그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장애의 경우나 심리적인 부분을 동반하는 신체적인 장애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앞당겨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병이 우리에게 고 있는 진실한 메시지를 가릴 수 있기 문입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래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권순길 채칠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자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2월22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월19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2월24일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재의 수요일후 금요일(2월24일) : 토런스 동구역
- 사순 제1주일 금요일(3월2일) :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9일)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16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23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30일) : P.V. 구역

◆ 사순절 회생 애금봉투가 재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 우리 가족의 회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금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5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서 배부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서류접수 : 4월1일~5월15일
- 장학금 지급 : 매년 8~10명 선정, 첫지급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성경공부’(그룹반)에 초대합니다.

- 과정 : ‘마르코 복음’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전 9시30분(수요일과 같은 내용)
- 장소 : 2층 교리실
- 동반자(지도) : 본당 수녀님

◆ 백삼위 골프회 2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2월18일(토) 오전 9시
- 장소 : Skylink 골프코스(통비치)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2011년도분 세금보고 세미나(사회복지분과 주최)

- 일시 : 2월19일(주일) 낮미사와 친교점심후, 강당
- 강사 : CPA 채양식 막시밀리언 콜베
- 세미나 내용 : 공제항목, 크레딧,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과 세대상금액, Capital Gain or Loss, 해외금융자산보고 등
- 문의 : 차인수 안드레아 사회복지분과장 ☎(310)256-6001

◆ 미주가톨릭 방송(KCBC)시간 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 AM1650 라디오서울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8시 AM1230 우리방송
- 방송봉사자 모집 :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바랍니다.
- 문의 : 김선희 안나 ☎(213)220-1245
경 헨리 ☎(213)500-3852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12일(주일) : 토런스 동2반(소고기무우국밥 \$3)
주일학교(4학년 떡볶이)
- 2월19일(주일) : 하버/카슨 구역(설렁탕 \$3)
주일학교(수업/점심 없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성현 김철민 박인식 배태임 원건희 장영우 주영석 최트로이	구자운 김영경 김종길 박정자 석순영 이근모 전시웅 지경수 영희가보라	김교복 김영길 노혜숙 박주현 성낙호 이상석 전정일 최길주 영희가보라	김대우 김옥보 민기남 박진경 송기철 이영미 정동호 최수현 박제이롭	김병조 김원모 민순선 박현주 신경훈 이영희 정병훈 최원석 합계 : \$9,950	김병철 김종철 박봉성 방정복 임정자 이은록 정병훈 최희태 합계 : \$9,950	김선제 김종훈 박씨니 메기엽 오일순 이정훈 조인순 황학수 합계 : \$9,950	성전헌금	구자운 김원모 박씨니 성낙호 이영희 지경수	김교복 김철민 박인식 신경훈 이은록 최길주	김대우 김종길 박주현 임정자 장영우 최원석	김병조 노혜숙 박진경 원건희 전정일 영희가보라	김선제 민기남 박현주 이근모 정동호 박제이롭	김영길 민순선 방정복 이상석 정병훈 조인순	김옥보 박봉성 석순영 이영미 조인순	합계 : \$2,700
미사헌금 : \$2,819	2차헌금 : \$1,143						달력광고후원 : \$45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시작
 - 기간 : 2월1일(수)~3월31일(토)까지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 ◆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9일(금)~3월10일(토), 장소 : 백삼위 본당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펄백, 재킷, 주일학교 티셔츠, 세면도구
 -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참가비 : \$60(3월1일 이후 신청은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펄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 교무주임 ☎(424)903-6637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30명(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면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율리아 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 ◆ 주님탄생애고축일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세미나
 - 일시 : 2월16일(목)~18일(금) 오후 7시~10시
 - 장소 : LA 성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지하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 성가집
 - 강사 : 김명숙 하야친타 수녀(티없으신 마리아성심 수녀회)
 - 문의 : 주배석 비오 ☎(818)571-8438 (파티마의 푸른군대)
-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2월18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성 골롬반 선교센터(2600 N. Vermont Av. LA)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남성(18세~35세)
 - 문의 : (323)734-4946
- ◆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발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빈혜경 율리아나 920-5153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 2/4(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11(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619-7763 2/12(주일) 사하라 온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2/14(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이명자 마가렛 320-0855 2/17(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2/10(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2/1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2/18(토) 오후 6시30분 성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최현찬 안드레아 938-0848 2/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2/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 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2/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2/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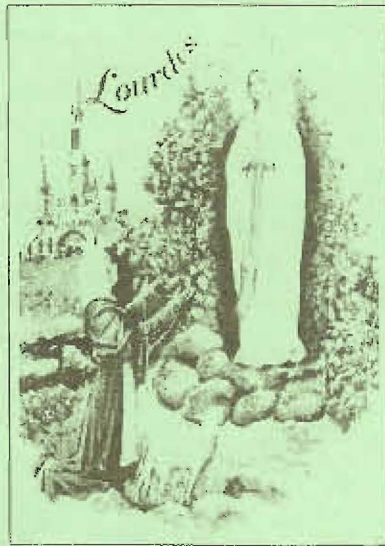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 17,19)

2012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거행하는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모든 병자 여러분에게 교회의 관심과 애정을 전합니다.

올해는 2013년 2월11일 독일에서 열릴 병자의 날 세계 대회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저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병환자에게 하신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고통과 질병을 겪어온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믿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 중 단 한 명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에 넘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며 건강의 회복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보다 더 소중한 것의 표징이며, 육신의 치유를 통해 주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지닌 온전한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결함하게 해 주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죄에서 희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자녀에게 충만한 화해와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늘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여 아픈 이들의 상처를 돌보게 하고 특별한 성사인 병자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 병자를 맡겨 드리며 병고를 덜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병자성사에서 성사적 질료인 성유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약”으로 주어지며, 하느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해 주고 힘과 위로를 주면서 동시에 병고의 순간을 넘어 결정적인 치유 곧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병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목적 배려는 고통 당하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 자애의 표징이며, 동시에 사제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병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더욱 온전히 자신을 동화시키도록 도와주는 하느님 은총의 귀중한 도구입니다. 본당 공동체는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성당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성체를 자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대한 동화는, 노자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자 성체는 “불멸의 영양, 죽음의 해독제”

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건너가는 성사입니다.

이 담화의 주제는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될 ‘신앙의 해’를 내다본 것입니다. 신앙의 해는 신앙의 힘과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신앙의 내용을 탐구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 신앙을 증언하는 소중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와 성사를 통하여 자라납니다. 목자들은 병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꺼이 성사를 거행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과 가족이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모님께서 모든 병자와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복돋아 주시기를 빕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배론 성지

원주교구,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소재.

배론은 주변 골짜기가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생긴 이름으로 박해를 피해 산과 계곡으로 숨어든 신자들이 모여 교우촌을 이루고 용기를 구워 신앙생활을 영위하던 곳이다. 또한 1801년 신유박해 이후 황사영이 숨어들어와 ‘백서’를 쓴 곳이며, 1855년 성 장주기 회장의 초가집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성 요셉 신학교가 복원되어 있는 곳이다. 신학교 뒷산에는 오늘날 사제들이 걸어야 할 사목자의 길을 몸소 일깨워준 ‘맘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의 묘가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주보 1면 사진 참조>